

# 웹툰 플랫폼의 공동독서와 그 정치미학적 가능성

김건형\*

1. 웹툰의 위치와 '공동독서'라는 존재론
2. 공동독서의 정치미학과 일상툰의 서술전략
3. 동정의 자격과 극복의 이중적 응시: <나는 귀머거리다>
4. 이반 검열에 맞선 연애하는 보편적 일상: <모두에게 완자가>
5. '대외 이미지'의 균열과 불편한 동성애의 전략: <이게 뭐야>
6. 나가며

## 국문요약

웹과 스마트폰의 예술인 웹툰은 기존 출판문예와 달리 작가의 등단부터 재제까지 독자가 결정하며, 이는 작품과 그에 대한 타인의 독해인 '덧글'을 병치하는 웹툰 플랫폼에서 연유한다. 본고는 타인의 읽기를 같이 읽는 웹툰 특유의 공동독서가 근대 이전 공동체적 독서에서 공동감을 생성하던 감성의 정치와 유비되는 정치미학적 효과를 산출함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작가와 독자가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공유하는 일상툰에 나타난 소통양상에 주목했고, 웹툰 플랫폼의 독서방식이 산출하는 정치미학을 살폈다. 장애이해가 일방적인 동정이나 경탄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독자들이 서로 수정하는 <나는 귀머거리다>, 성소수자의 보편적 일상을 그리면서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작가 자신의 성정치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모두에게 완자가>, 타자의 재현에 대한 독자의 동화주

---

\* 육군사관학교 강사

의적 요구와 반목하고 그 균열을 제시하며 타자성을 고수하는 <이게 뭐야>의 플랫폼의 공동독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웹툰 플랫폼이 활발한 독자-독자, 독자-작가의 상호소통을 유발하며 그것이 창작과 독서의 준거임을 확인했다. 웹툰 플랫폼과 공동독서에 주목하는 관점은 향후 연구에서 웹툰의 상호소통적 매체론과 그 효과를 부각할 것이다. 또한 웹툰처럼 공동감을 나누게 하는 플랫폼(매체)이 비가시화 되어 있던 타자들의 재현을 정치로 부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웹툰, 일상툰, 공동독서, 상호소통, 베스트 댓글, 일상성, 장애이해, 성소수자, 정체성 정치)

## 1. 웹툰의 위치와 ‘공동독서’라는 존재론

웹툰이 등장한지 20여년이 흘렀다. 이제 웹툰은 장밋빛 성장이 예견되는 잠재태가 아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된 스마트폰의 위력에 힘입어 웹툰은 선배인 출판만화는 물론이고 어느 예술보다도 압도적으로 대중을 장악했다. 웹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웹툰이 즉각적이고 일상적 접근, 다발적이고 집단적인 소통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일찍부터 애니메이션과 웹디자인 학계는 웹툰의 시각적 재현 방식, 특히 기존 출판만화와 다른 인터랙션 활용에 주목해왔다.<sup>1)</sup> 웹툰의 고유

1) 김용현·고은영,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정규하·윤기현, 『웹툰에 나타난 새로운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김지연·오영재, 『웹툰에 있어서 서사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한 그림체, 비선형적 서사구성, 진행버튼을 통한 전개, 인터랙티브 모션, 동영상과 음향활용 등 새로운 표현기법을 주로 다룬다. 해외의 인터랙티브 웹툰 사례에 비해 한국 웹툰은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웹디자인을 잘 활용하지 못해 출판만화처럼 획일적, 병렬적으로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 특히 최근 대형 플랫폼의 획일적인 세로 스크롤 방식을 비판했다.<sup>2)</sup> 그러나 본고는 독자를 위한 인터랙션 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의 비판이 역으로 한국 웹툰의 대중적 인기가 서사적 인터랙션 기능보다는 작가와 독자를 잇는 플랫폼의 대화적 독서 양상에 기인함을 반증한다고 파악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학계와 경영학계는 기존 출판만화가 판매제로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0(3), 한국영상학회, 2012; 정규하·윤기현, 『웹툰에 나타난 특징적 말간 연출에 대한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김규인 외, 『웹툰 내용 유형에 따른 페이지 넘김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14(2), 한국HCI학회, 2014; 홍은정·엄주희, 『웹툰의 UX 특성과 사용자 몰입 및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4),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5.

2) 손혜령의 『웹툰의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10(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275쪽)는 해외 웹툰의 인터랙션의 사례와 한국 웹툰을 비교하며, 이후 이어질 종스크롤 방식에 대한 원형적인 문제제기를 보여준다. 김용현·고은영,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79-80쪽; 김지연·오영재, 『웹툰에 있어서 서사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국내의 웹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0(3), 한국영상학회, 2012, 131쪽; 정규하·윤기현, 『웹툰에 나타난 특징적 말간 연출에 대한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412쪽; 김현원·염동철, 『웹툰의 스크롤 인터랙션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요소 적용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3, 32쪽; 고은나래·김효용,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있어서 웹툰의 발전과 앱툰에 관한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1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50쪽. 이들은 출판만화와 다른 칸 구성, 인터랙티브 모션과 효과 등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웹툰은 세로 스크롤로 획일화 되어 매체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 출판만화의 구성을 답습해 아쉽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린다.

소유권에 기반을 두었던 것과 달리 웹툰은 서비스 재화로 접근권(트래픽 유입)에 기반한다는 특징을 전제로 웹툰의 수익구조, 한국형 웹툰의 세계시장 진출을 논의한다.<sup>3)</sup> 이는 단순히 산업구조라기보다는 출판만을 포함한 근대예술과 창작·향유의 방법에서의 큰 차이를 시사한다. 즉, 현재 웹툰의 중요한 특징이 대형 포털에 의한 작가 발굴 및 작품 관리 시스템, 무료 전시,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웹툰 서사에 주목한 연구는 주로 웹툰의 구조와 수사법을 분석하여 장르적 규범을 다룬다. 개연성과 통념을 전복하는 반전구조에 주로 주목하는데 서사구조를 귀납해 웹툰이 고유한 미학적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의의가 있다.<sup>4)</sup> 한편 웹툰의 주제의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88만원 세대의 사회경제적 불안, ‘병맛’과 ‘잉여’라는 서브컬처, 일상툰의 개인성을 다룬다.<sup>5)</sup> 이는 웹툰이 단순히 오락성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사유, 특히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가와 독자들이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

3) 송요섭, 『웹툰의 발생과정 탐색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0(4),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윤기현 외, 『웹툰통계분석을 통한 한국웹툰의 특징』,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박인하, 『한국웹툰의 변별적 특성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4)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이용욱,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홍난지·박진우, 『병맛만화의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0(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4; 홍난지, 『개그웹툰의 자기반영적 패러디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5)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잉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인문학』 4(2),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1; 류철균·이지영, 『자기재현적 웹툰의 주제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30, 대중서사학회, 2013;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정인, 『일상툰에 나타난 청년의 정체성과 재현기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지한 정체성 형성과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함을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선행 웹툰 연구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웹툰의 인터랙션 기능에 국한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플랫폼을 다룰 때도 역시 상호소통의 양적 수치(댓글의 양)와 수익성의 관계를 주로 다룰 뿐,<sup>6)</sup> 상호소통의 질적인 면이나 그 답론은 잘 다루지 않았다. 웹툰의 서사구조나 주제의식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독자들의 댓글을 통한 정보공유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다룬 정도다.<sup>7)</sup> 현재까지 웹툰을 등장하게 만든 상호소통 기술의 의미 및 새로운 독서 방식과 교호하는 독자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웹툰을 존재하게 하는 지평이 작가-독자, 독자-독자의 상호소통의 플랫폼임을 전제로 상호소통이 다층적인 면에서 웹툰의 창작과 수용에서 새로운 미학적 준거임을 실증하고자 한다. 또 작품이라는 ‘발제’를 바탕으로 한 작가/독자의 상호소통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근대 문학과 근대적 개인의 묵독의 ‘종언’ 이후의 웹 기반 독서와 그에 기반한 새로운 미학적 주체를 모색한다. 이는 창작기법에 치우친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독자와의 소통과 웹툰 특유의 매체론을 고려하는 연구와 근대 이후의 독자와 독서를 상상하는 연구를 기대하게

6) 채정화 외, 『웹툰 서비스의 사용편리성과 상호작용적 행위가 서비스 만족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와타누키 레이코,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이 네이버 웹툰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 병맛 만화의 상호텍스트성의 공유(홍난지·박진우, 『병맛만화의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10(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4, 157쪽), 개그웹툰의 패러디 원작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홍난지, 『개그웹툰의 자기반영적 패러디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11(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121쪽)를 다룬 정도이다. 류철균·이지영, 『자기재현적 웹툰의 주제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30, 대중서사학회, 2013은 일상툰의 댓글이 작가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독자가 일상성을 공감하는 사례를 다뤘다.

한다.

현재 웹툰은 웹기반 예술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장르이기에 독자의 반응과 창작의 소통을 보여주기 적절하며 또한 한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선학들이 지적하듯 <마린블루스(2001)>와 <스노우캣(2001)>처럼 작가의 일상을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한 4컷 만화가 웹으로 공유되면서 웹툰이 시작되었다.<sup>8)</sup> 초기 웹툰은 개인 공간에 작가의 일상을 짧은 분량으로 주기적으로 게시하며 탄생했고 이를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게시판이 공유하며 대중화 된다. 이후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포털이 웹툰 코너를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웹툰 플랫폼이 정착됐다.<sup>9)</sup>

이러한 웹툰의 기원에서 상호소통성이라는 매체(웹툰 플랫폼)의 틀이 탄생한다. 현재 웹툰은 작가의 등단부터 독자의 상호소통에 의해 결정된다. 편집자/비평가가 선발했던 기존 만화가나 작가와 달리 웹툰 작가 지망자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게재하면서 등단을 준비한다. 포털의 플랫

8)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3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470쪽. 윤기현 외, 『웹툰 통계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연구』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182쪽. 특히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연구』, 『애니메이션연구』11(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은 스토리툰인 강폴의 <순정만화(2003)>을 기원으로 보는 시각은 웹툰의 일상성(공감성), 공유성(네트워크성), 상호작용성을 해명할 수 없기에 그 이전에 홈페이지에 연재된 작품들을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의할만한 논의를 보여준다.

9) 위근우, 『새로운 데뷔 시스템은 웹툰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실천문학』 119, 실천문학사, 2015, 230쪽. 이용옥은 웹툰의 기원을 세대별로 정리했다. 1세대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와 만난 <마린블루스>, <스노우캣>의 일상 다이어리툰으로 대표되며, 2세대는 다이어리툰에서 극화형식으로 발전한 강폴의 <순정만화>로 대표되며 포털의 요일별 연재가 시작되었다. 조석, 지강민, 신의철, 김규삼으로 대표되는 3세대 만화는 현재와 같은 본격적인 포털 연재 웹툰으로 자리잡아 댓글 게시판, 별점을 비롯한 상호소통성을 위한 플랫폼이 부각된다. (이용옥,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3장)

품을 통해 독자의 별점 평가, 댓글과 조회 수(웹툰 리그의 경우 독자 투표)를 집계해 대중성이 입증되면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하고 전문 작가로 인정받는다. 즉 예술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대중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심에 의해 작가가 탄생하며, 독자들은 선호하는 작가가 등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등단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작가의 고료 역시 투고 시에 받지 않고 작품을 보러 찾아오는 독자들의 트래픽에 의거해 책정된다. 따라서 웹툰 독자들은 연재 성실도나 작품의 질을 기탄없이 평가하며 이를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는 댓글 문화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 문예지와 달리 편집부의 통제나 선별 없이 직접 작가-독자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집부의 권위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웹툰 독자들에게 작가는 지식인 혹은 전문적 예술가로서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감상이 작가를 만들어내고 규정함을 자각하고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작가를 대한다. 일방적으로 작품을 받아 읽거나 계몽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지위에 선 독자인 것이다.

새로운 독자의 지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창출하는 웹툰 플랫폼은 독자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의 추천, 별점, 댓글 시스템을 강조한다.<sup>10)</sup>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작품을 읽고 자신의 감상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작품의 독해와 타인의 감상평은 즉각 공유된다. 웹툰 플랫폼은 작품의 하

10) 웹툰의 댓글은 네이버의 경우 평균 2천여 개, 다음의 경우 1백여 개를 상회한다. (김재필 외, 『웹툰 플랫폼의 진화와 한국 웹툰의 미래』, 『Issue & Trend』, KT경제경영연구소, 2013, 13쪽.) 독자의 별점이나 조회수는 다른 독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웹툰 플랫폼은 댓글과 같은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는데, 독자의 웹툰 이용의사가 높을수록 댓글 상호작용 역시 높아지며,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유료 웹툰에 대한 지불의사도 높아지고 웹페이지에 대한 충성도 역시 증대된다. (채정화 외, 『웹툰 서비스의 사용편리성과 상호작용적 행위가 서비스 만족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280-281쪽)

단에 다른 독자들의 댓글을 볼 수 있게 교차 배치한다. 텍스트와 그에 대한 타인의 독해를 동시에 읽는 메타 독서가 매체 자체에 표준화 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의 어떤 문예 장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읽기 방식이다.<sup>11)</sup> 더욱이 그 타인의 독해에 대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긍정평가를 많이 받은 댓글은 베스트 댓글(베댓)로 뽑혀 웹툰의 바로 하단에 더 가시화 된다. 작품 자체도 대중적인 평가에 기인하는데, 그 작품을 읽은 타인의 독해조차 다시 평가에 의해 재배열된다.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에 연재되는 웹툰의 특성상 대부분의 베스트 댓글은 게재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된다. 작품의 게재와 독서, 댓글 작성, 베스트 댓글 투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현재 웹툰 플랫폼은 작품읽기와 댓글읽기가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보여준다.<sup>12)</sup> 웹툰 읽기는 결코 개인의 읽기가 아니라 공동적이며, 타인의 읽기를 전제하는 메타 읽기다.

독자의 평가와 트래픽에 의거해 작가(와 고료)를 평가한다는 존재 조건은 창작에도 직접 영향을 끼친다. 작가는 작품 내용, '작가의 말' 코너, 작품의 전후에 다는 작가의 변, 시즌 후기 등을 통해서 자신이 독자들의 평가를 고려하며 차후 연재분이 그 반응의 일환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들의 웹툰 읽기가 다시 웹툰의 창작으로 반영되는 순환 구조

11) 기존의 독자의 반응, 가령 신문연재소설의 독자의 투고가 편집부를 향한 단편적인 소통이고 TV드라마 게시판이 적극적인 소수 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작품 자체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웹툰 플랫폼은 텍스트와 해석을 병치하고 해석에 대한 독해를 요구한다. 특히 일상툰은 작품 자체가 노골적으로 독자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창작되는 점도 기존의 서사적 문법과 다르다.

12) 최근 등장한 네이버의 '킷툰'은 독자가 웹툰 장면마다 댓글을 달 수 있고 장면별 댓글과 베댓을 모아서 보여준다. 다음은 여러 작품의 베댓과 작가들의 댓글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댓글 작성 시 스포일러 유무를 표시하여 독해와의 병치를 강조한다.



에 있다. 이처럼 웹툰 플랫폼의 다층적 상호소통성은 웹툰의 존재를 규정하는 조건이다. 웹툰은 공동의 창작을 위해, 공동의 읽기를 통해 존재한다.

## 2. 공동독서의 정치미학과 일상툰의 서술전략

작품을 읽으며 왁자하게 떠드는 독자들, 그 소요에 휘둘리는 작가. 이러한 독법은 근대적인 독자와 작가에겐 낯설다. 그러나 공동독서는 오래 전부터 대중들의 주요한 읽기 방법이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하는 곳에 이르자 홀연히 눈을 찢어질 듯이 (부릅뜨고) 거품을 복적거리며 담배 썬는 칼을 들어 소설책을 읽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sup>13)</sup>

이야기꾼의 소설 낭독을 대중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며 강렬한 감정적 동일시를 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작품을 가공하는 요전법(邀錢法)은 상업적 문학의 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동독서였음을 방증한다. 방각본 소설이나 한글 필사소설의 독자층인 양반 중인층의 여성 및 평민 남성들은 책을 교환하고 필사하기도 하면서 공동으로 독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변이와 개작, 읽기를 반영한 재창작이 이뤄졌다.<sup>14)</sup> 윤독(輪讀), 낭독, 구연(口演)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나 가문 공동체는 텍스트를 공동으로 향유했고 공동으로 개작하거나 아예 집단 창작하기도 했다.<sup>15)</sup>

13) 李德懋, 『雅亭遺稿』, 『靑莊館全書』 20. 번역 및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14)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2, 191-192쪽.

15) 정병설, 『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 한

공동독서/음독은 개인적 독서/묵독과 정신구조(Mentality)에서 차이가 있다. 음독을 통한 읽은 공유적이고 외면적이고 사람들을 집단으로 연결시킨다. 공동체적 독서는 같이 읽는/듣는 사람이 책의 사상과 정서에 공감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혼자 문자를 읽고 쓰는 행위는 고독한 개인주의적 활동이며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읽을 지향한다.<sup>16)</sup> 읽기의 공동성과 개인성의 차이는 서술도 결정한다. 공동체적 독서와 음독은 다른 독자의 정서와 인식을 동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작가(낭독자)는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서사를 바꾸고 유동적인 서술시점을 취하며, 기록되는 경우에도 작가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그러나 묵독의 문화에서 작가는 인쇄된 텍스트의 고정된 서술 시점을 가진다.<sup>17)</sup>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이퍼텍스트나 관객 참여연극 등은 근대적 묵독이 상실한 공동독서에 대한 회상이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대중들은 필요에 따라 공동독서를 즐긴다. 가령 그동안 소규모의 집단으로 한정되었던 TV시청 집단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느슨한 네트워크형 ‘공동시청(Co-viewing)’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소셜 미디어의 대화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각자의 TV시청을 조정하고 표현한다.<sup>18)</sup> 이는 기존의 워터쿨러 효과(Water cooler effect)<sup>19)</sup>와 같은 대중들의 공동시청이 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둘 경우에도 여전히 대화적 텍스트를 생산하여 공동적 향유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국고전문학회, 1997, 247쪽.

16)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푸른역사, 2014, 111쪽, 118-119쪽.

17)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푸른역사, 2014, 120-121쪽.

18) 심홍진·유경한, 「소셜미디어 이용과 TV 시청의 관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1), 문화방송, 2014, 17쪽.

19) 심홍진·유경한, 「소셜미디어 이용과 TV 시청의 관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1), 문화방송, 2014, 37쪽. 워터쿨러 효과는 직장 동료들이 물이나 커피를 마시며 정수기 주변에서 가십거리를 가지고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면에서 연유했다.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할 경우 혼자보다는 함께 소비할 경우에 더 큰 효용과 즐거움을 느낀다.

개인적이고 지성적인 묵독과 달리 공동독서는 대중들의 즐거움과 독자와 작가의 공감, 상호소통을 중시한다. 이는 감성적인 공통감을 만들며 특유의 정치미학을 창출한다. 1900년대 신문종합회에서부터 1930년대 야학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적 독서는 다양한 계몽운동과 결합해 성행하며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줬다.<sup>20)</sup> 식민지 시기 성행했던 동화회는 동화 구연가의 텍스트 읽기를 다수의 대중이 공유하며 감정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근대적 출판과 독서가 보급되자 오히려 독자들은 공적 장소에 모여 함께 각자의 독서 체험과 감정을 나누고 공동으로 확인했다. 이 강렬한 일체감의 공동체와 감정적, 윤리적 주체되기는 일경(日警)에게 위협적인 정치적 반응으로 인식되어 검열과 제재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sup>21)</sup> 근대 이후에도 공동체적 읽기는 꾸준히 모종의 정치미학적 효과를 창출해왔다.

다만 인터넷 소통기술에 기반을 둔 근대 이후의 공동독서는 시공간적 합일을 통한 이전의 공동체적 독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sup>22)</sup> ‘공동체적 독서’가 한 장소에서 한 인물의 목소리를 통

20)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14, 113쪽.

21) 조은숙, 『식민지시기 "동화회(童話會)" 연구: 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 45, 민족문화연구원, 2006, 255-256쪽. 동화회는 1920-30년대 동화구연을 중심으로 열린 대중적 문화행사로 수천의 청중을 모을 만큼 인기를 누렸다. 인쇄매체가 대중화되는 시점에도 구연이라는 공동체적 독서를 향유하고 변이한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22) 월터 옹은 전자매체가 그 준립을 쓰기와 인쇄에 힘입는 ‘이차적인 구술성’을 보이며 문자문화보다는 구술문화와 유사하게 강한 집단 의식을 낳는다는 통찰을 보인다. 인쇄된 텍스트 읽기가 청중의 일체성을 무너뜨리고 홀로 독서의 세계로 빠져 개인을 내향화하는 것과는 달리 말하기에 귀를 기울이는 청취자를 현실적인 청중, 집단으로 만든다. (월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12, 216-217쪽) 웹 기반 매체 역시 물리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말하기처럼 동시적 소통을 이룬다. 그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정신구조(mentality)를 비교한 것처럼 근대적 독서와 웹 매체의 공동독서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해 독서의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강렬한 감정으로 합일되는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웹툰의 ‘공동독서’는 시공간을 공유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느슨한 공동감을 만든다. 공동체적 독서는 그 일체감 내부의 차이들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독자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거대한 동일성으로 일체화 되는 방법이다. 반면 웹툰은 독서 시공간의 개별성으로 인해 강렬한 일체감은 느끼기 어렵지만, 오히려 차이들과 의견을 무화시키지 않고 느슨하지만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공동감을 창출한다. 차이들의 합리적인 해소와 결집을 위한 댓글과 베댓의 공론장을 제공한다.

그런데 웹툰은 공동독서의 플랫폼을 가지면서도 작가의 강한 개성을 서사화하여 문제적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웹툰은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한 만큼 작가의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 작가-독자의 직접 소통은 내포작자나 서술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가의 삶을 서술하는 ‘1인칭-작가’의 다이어리툰을 탄생시켰고 이는 현재의 일상툰으로 이어진다. 기존 출판만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상툰은 웹툰 특유의 성장배경을 간직했다. 일상툰이 생활인으로서 작가의 실제체험과 사유, 감정을 그리는 과정은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다. 일상툰 독자들은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과정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동조하며 공동감을 창출한다. 따라서 일상툰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독자들의 공동 텍스트가 되고, 일상툰의 댓글 게시판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독자들의 공론장이 된다.

일상툰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가의 경험을 짧은 내용으로 연재한다. 마치 친구의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듯 일상 틈틈이 일상툰을 향유하고, 독자는 작가와 친밀감을 느끼고 감성적 공동감을 느낀다. 더하여 짧은 연재주기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작가의 응답과 창작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응답으로 독자는 자신의 읽기가 의미있는 활동임을 확인하고 정체성 형성 과정에 동참함을 자각한다. 동시에 독자는 다른 독자의 정체성 형성 발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공동감을 재확인한다.

고전적인 공동체적 독서가 창작이 사후에 개작, 수정하는 형식이라면 웹툰은 창작(연재) 과정부터 작가와 독자가 대화적 텍스트를 구축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의 중간에 독자의 반응을 반영하기에 작가주의적 세계가 약하고 상품추수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또한 그로 인해 공동 창작이 가능해진다.<sup>23)</sup> 이는 문예/만화 잡지의 성근 연재주기, 편집부의 선택을 거친 독자투고 등으로 인해 기존 매체에서는 불가능했던 동시성이다.

일상툰은 사실적인 극화체보다는 개별 대상 지시적 인물묘사를 없애고 작가이자 캐릭터를 단순한 표상으로 강조하여 누구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sup>24)</sup> 실제 생활인인 일상툰 작가의 자기 반영적 작품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의 정체성과 이질적인 독자도 일상툰에서 타인의 구체적인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일상툰은 가상인물이 아닌 작가의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본고에서도 분석하겠지만) 독자들은 '인물=작가'에 대한 신뢰와 배신감이 강하고 적극적

23) 이런 점에서 최근 '레진'과 같은 웹툰 플랫폼이 작가주의적 세계를 강조하고 독자의 반응이나 댓글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경향은 웹툰 고유의 매체론보다는 기존 출판문화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24) 류철균·이지영(『자기재현적 웹툰의 주제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30, 대중서사학회, 2013, 130-134쪽)은 일상툰의 자기재현적 캐릭터가 단순화된 표상을 통해 거대한 사회적 담론에 거리를 두고 개인성에 주목한다고 본다. 본고는 일상툰이 개인의 정체성에 주목하지만 다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고 공동독서로 확장함을 포착한다. 개인의 이야기, 작은 서사가 과연 전적으로 공적담론을 배제하고 비(非)정치적인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일상툰은 정치적일 수 없는가?

으로 작가(인물)의 행동과 서술방식을 판단하려한다. 이는 작가가 제기하는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공동감과 정치적 반향으로 산출되면서 일상툰 플랫폼 특유의 정치미학을 보여준다.<sup>25)</sup>

일상툰의 공동독서는 독자들 모두 합일되는 공동감은 아니다. 특히 소수자 정체성을 다룰수록 동일성의 체제에 대한 위협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독자들 역시 적지 않고, 독자끼리도 불화하고 갈등한다. 소수자 정체성을 다룬 일상툰의 독자들은 작가와 작품(속 일상/정체성)에 대한 애정과 독서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느슨한 공동감을 유지하고 공감하기도 하지만 이를 비판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웹툰 플랫폼은 어디까지, 어떻게 소수자 정체성을 인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담론의 각축장이 된다.<sup>26)</sup>

본고는 웹툰의 공동독서가 산출하는 공동감과 정치미학을 살펴보기 위해 청각 장애인의 일상툰 〈나는 귀머거리다〉, 여성 성소수자의 일상툰 〈모두에게 완자가〉, 남성 성소수자의 일상툰 〈이게 뭐야〉와 그 플랫폼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작가의 일상을 잘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대형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일반적 등단 경로를 밟아 정식 연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인 댓글은 분량의 방대함과 가변성으로 인해 독자의 추천에

25) 스토리툰 역시 특정한 정치미학을 산출할 수 있지만, 강렬한 작가의식을 전제로 하므로 독자 개입이 제한적이다. 계획된 서사가 있기에 독자의 공동독서가 작품 이해로 한정되며 또한 가상 인물의 행위는 창작이라는 거리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인물의 행위일 때 독자는 보다 윤리적,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다.

26) 본고는 소수자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를 둘러싼 인정 투쟁에 중점을 둔 정치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인정 투쟁'은 계급과 재분배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치적 문제들 보다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등 차이 인정을 둘러싼 문화적 정치가 주목받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공동독서가 웹툰 창작에 간여하면서 독자들의 담론 형성을 유도하는 다층적인 역할을 통해 소수자 인정/재현 담론과 공동감이라는 정치적 자원을 산출함에 주목한다.

의해 선정되는 베댓(베스트 댓글)으로 한정했다.<sup>27)</sup>

### 3. 동정의 자격과 극복의 이중적 응사: 〈나는 귀머거리다〉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2015.8.12.~현재)는 작가 ‘라일라’가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학창시절과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그린다. 청각장애인의 일상과 불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귀여운 그림체와 패러디를 통해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도전 만화와 베스트 도전을 거쳐 정식 연재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의 일상을 다루는 만큼 청각 장애인 독자(와 그 가족)들이 작가의 일상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다. 자신이 청각 장애인임을 밝히고 작품 속 구체적인 상황에 기대어 공감되거나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베댓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피스케스 (kkk8\*\*\*\*) 2016-01-16 03:56

전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만큼 온전한 소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정도로 들을수있는데요. 어릴적 부모님께서 절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못하시느바람에 현재 발음이 조금 어눌하고, 학창시절 제 인공와우를 보며 놀리던 아이들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아직도 가끔 무의식중에 귀를 가리곤합니다. 라일라님 만화를 보면서 안좋은기억이나 시선들을 많이 잊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단말씀 드리고싶어 댓글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6화 입모양)

27) 본고의 목표는 댓글 전체의 계량적 연구가 아니라 공동독서의 정치미학적 장면을 포착하는 데 있으므로 독자 추천수 기준 15위 이상의 베댓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다. 내용 수정 없이 인용했으며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다.

고양이 (alse\*\*\*\*) 2016-02-05 23:41

있잖아요 너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저 청각 장애인 2급인데 그걸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나요. 나도 잘 듣고싶은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비장애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으니 이 말을 꼭 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는 꼭 기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2화 역지사지)

작품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청중이 마련되었기에 다른 장애인 독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을 공유한다. 장애인 독자들은 작가의 체험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재현해준 작가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비슷한 삶의 상처를 제시하며 자서전적 내용을 쓰기도 한다. 웹툰의 매화별 소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청각 장애 독자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은 그 자체로 작품의 보조적인 텍스트로 교차 독서 된다.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을 밝고 재미있게 그린 <나는 귀머거리다>는 다른 청각장애인 독자들의 일상을 담은 댓글에 의해 보편성과 구체성을 보충 받고, 독자들은 그러한 청각 장애인의 구체적인 사연을 베댓으로 추천한다. 이는 비장애인 독자들 역시 청각 장애인의 댓글에 감성적 반응을 확장하고 자신이 추천한 사연을 다른 독자도 함께 읽기를 기대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각장애인 독자들의 베댓은 작가 개인의 일상에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

인용문처럼 청각 장애인 독자들은 청각적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눈치가 없다는 오해를 받은 사례나 청소년기의 따돌림 경험을 서술하며 청각 장애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거창한 제도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밝힌다. '말귀'라는 일상적인 말이 청각적 정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당부를 비장애인 독자에게 전하고 비장애인 독자들 역시 이 호소에 응답한다.



치맥 (dnsw\*\*\*\*) 2015-11-27 23:25

저 초6인데요... 언어장애 2급이라 발음 어눌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매일 왕따당하고 울고 집에와서 엄마얼굴 보면 눈물 나고 엄마도 같치 물어주고 진짜 매일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만화보는데도 눈물나려고해요 작가님 초등학교시절 어떻게 버티셨어요? 알려주세요

(to54\*\*\*\*) 2015-11-28 00:11

베스트에 치맥님 살다보면 아무래도 별별 종자들이 다 있어요. 문제는 학생은 학교에 오래 있어야 하다보니 그런 종자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니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너를 너 스스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과 니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줄 사람이 트럭으로 쌓여 있다는 걸 일단 외워주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은 머리에 외워주세요. 잘 자라줘서 그런 사람들과 기분 좋게 치맥을 한잔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쓸 수 있는 자원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깔려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예약 후에 학생의 정신보건에 관한 종합상담 및 follow-u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셔서 조만간에 신청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쓸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용은 32화 호칭)

하느소리 (elfp\*\*\*\*) 2015-10-30 23:17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 중 한명이 청각 장애가 있어서, 여러 방법을 동원 해 가며 노래와 악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생각 했던 부분을 라일라님을 통해 좀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네요. 특히 발음을 배울때의 에피소드가 무척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학생은 보청기를 끼고 아직은 간단한 단어만 구사할 수 있어요. 아직 유치원생이라 어리기도 하지만요. 제법 진지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기특해 더욱 애착이 가는 학생이에요. 라일라님의 더 좋은 에피소드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24화 전화1)

통합교육<sup>28)</sup>을 받고 있지만 언어장애로 따돌림을 당하는 초등학생이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받는 교육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것

일상적 배제를 호소하는 댓글이 베넷으로 추천되고 이를 읽은 성인 비장애인 독자가 성인의 입장에서 장애학생에게 나름의 조언을 건네고 교육청의 wee사업 청소년 상담소를 알려준다. 이는 다시 독자들의 추천에 의해 베넷이 되었다. 장애 학생의 도움요청과 비장애인 독자의 응답이라는 대화적 장면이 베넷 플랫폼의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교육 종사자의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방법을 찾는 독자들도 찾아온다. 음악학원 교사 ‘하느소리’는 청각장애 아동 대상의 수업모형을 고민하다가 작품 속 청각 장애인의 일상 발음교육에 대한 정보에 감사를 표한다. 작품의 댓글창에서 통합교육의 구체적 방법론의 부재를 호소하는 장애 학생 독자들과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하는 독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귀머거리다>가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는 베넷도 많다.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 독자의 이해와 공감은 작가 라일라 스스로 밝힌 창작의 목표이기도 하다.<sup>29)</sup> 작품은 주로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과 배려의 부족, 차별의 경험을 소재별로 재현하고, 독자들 역시 해당 소재와 연관 지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배워간다.

---

은 장소 배치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바탕으로 동일한 소속감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할 것을 지향한다. (이수연 외,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이해교육의 실태분석과 나아갈 방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3, 20쪽) 하지만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법이나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학교현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가 많다.

29) 필명 라일라인 “수연씨가 웹툰 연재를 시작한 이유는 ‘세상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봐주길 바란다. 만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를 이해한다면 친구가 장애를 가졌다고 오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툰클래스> 작가인터뷰,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5&mcate=M1006&nNewsNumb=20150317002&nidx=17004>)

Nothing (sjum\*\*\*\*) 2016-01-22 23:15

아...그래서 제 친구가 청각장애인인데..아무리 못들어도 끄덕이던거구나..... 저 친구분처럼 화만냈던 제가 정말 미워지네요..... 하...친구야...아...진짜.....미안해..... 상처 많이 받았을텐데...어떡해.....

(48화 끄덕임)

코델리아 (sing\*\*\*\*) 2016-02-23 23:23

저번에 청각장애인 두분을 만났는데 실제로 청각장애인분들을 본게 처음이라 솔직히 말해 그냥 궁금하고 그래서 자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 행동이 실례일수도 있다는걸 깨닫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그분들께 죄송하네요...남들을 차별하지말자 말하지만 가끔은 언행불일치가 일어나 창피하고 앞으로 제 행동들을 고쳐나가야겠습니다.....

(57화 수업3)

작품을 통한 장애 이해에 힘입어 자신에 대한 반성의 댓글 역시 꾸준하게 베댓으로 선정된다. 작품 48화의 경우 대화를 이해한 척 끄덕이다가 따돌림 당한 사례를 다루고, 57화는 비장애인들의 지나친 시선집중을 다루었다. 비장애인 독자는 작품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장애인에게 상처를 줬음을 작품을 통해서 깨닫고 이에 대한 자기반성을 고백하고 다른 독자들 역시 이 반성에 동감함을 추천으로 표한다.

비장애인들이 독서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에 대한 반성은 다시 다른 독자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를 묻는 대화로 나아간다. <나는 귀머거리다>에는 정보 제공적 성격의 베댓이 자주 보인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 비장애인의 장애이해를 위한 정보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청각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독자들이 웹툰의 소재와 연관된 손말이음센터, 수화통역 어플, 베리어프리 영화 보는 법, 방송자막 제공처 등 다른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독자들 역시 이 정보의 가시성을 위해 추천을 해준다.

(mich\*\*\*\*) 2016-01-16 01:46

새셔스// 청각장애인분들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거지 발성기관에 장애가 있으신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새셔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게 소리를 내고 있는건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말을 처음 배울 때도 정말 어렵구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데도 말을 하실 수 있는분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예요.

(46화 입모양1)

이런 정보 공유는 단순한 알림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독자 '새셔스'에게 답변하는 인용문처럼 비장애인 독자의 문의가 선행하는 문답의 형식인 경우가 많다. 작품 속 청각 장애인의 일상을 보고 생긴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제기하면 베댓이 되고, 이를 다른 독자가 답변해준다. 구화의 개념과 학습법, 청각 장애인의 실제 청력, 청각 장애인의 수능 듣기 영역 응시법, 청각 장애인용 알람시계, 인공와우 등 장애인의 구체적인 일상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소통 기술, 지원책에 대한 문답이 베댓으로 다수 등장한다. 또한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같은 여타의 장애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손쉽게 아름다운 통합에 이르진 않는다. 장애인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독자들은 무지를 반성하는 동시에 장애를 절대적인 고통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을 위해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선언은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Jen (iwit\*\*\*\*) 2015-08-14 23:51

작가님 저는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연민이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마음에 자리잡아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대신 해준다', '도와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제자신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

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에 그들의 고충이나 심정을 알지 못해 그렇다는 생각도 했구요. 앞으로 작가님 작품을 통해 어느 선까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인이며, 어디부터가 저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한 배품 실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 댓글에 무례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전 진짜 어느 선부터 무례한건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ㅠㅠ 암튼 앞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2화 면담)

많은 독자들은 장애차별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선 자신의 선언이 자기 만족을 위한 동정에 불과한지 진정한 공존을 위한 배려인지 구분하기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사례가 올바른 태도였는지를 되묻곤 한다. 이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았으니 무조건 돕겠다는 다짐이 반대급부로 장애인을 수동적인 객체로 만들었다는 점을 어렵듯이 느끼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다짐은 자신은 도움을 제공하는 보편적 주체의 위치에 두고 장애인도 도움을 받는 수동적, 일방적 위치로 제한한다. 장애인의 ‘다름’을 접한 결과가 동정으로 치우치는 것 역시 물론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sup>30)</sup>

장애인을 보는 ‘동정’의 독법은 <나는 귀머거리다>의 경우 특이하게 작가의 학력에 대한 경탄과 그에 대한 반발로 드러난다.

30) 장애를 개인적 고통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이나 사회 정책적 지원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모델’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개개인이 가진 ‘다름’ 혹은 타자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장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장애이해는 단순히 장애인의 불편을 배우고 이를 도와주는 ‘모의장애체험’ 수준이 아니라 “또 다른 인식의 온전한 상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편함이 아니라 차이의 인식으로서의 장애이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를 지향한다. (김성애,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4, 64-65쪽) 기존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의 아박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를 고통과 동일시하고 다른 요소를 간과한다. 장애인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동정의 관점이며 외부의 시선에서 타자의 삶을 논하는 위험한 일이다. 타인에 대한 인정은 타인을 임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숙정, 『고통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한국교육학회, 2011, 88쪽, 104쪽)

(pm13\*\*\*\*) 2015-08-21 23:05

이분 서울대 국문과 동양화가 졸업하신분이에요 진짜 머리 좋으신분..보통 사람들도 힘든데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건 엄청 대단한거..소리가 조금 안들릴 뿐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분이십니다!

김윤희 (kore\*\*\*\*) 2015-08-21 23:19

다른 장애인분들도 다른 문제 없으십니다. 서울대인 것과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 참 아쉽네요. 능력이 뛰어난 것과 장애를 굳이 결부시키는 인식이 오히려 안타깝고요.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약간 씩씩한 베타이네요, 제 입장에선...

혜빈 (jkk\*\*\*\*) 2015-08-21 23:28

김윤희씨 ~ 제생각엔 그냥 청각장애를 가져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갈만큼 그걸 이겨내셨다는걸 멋지다고 하는거같은데 그게 굳이 장애를 부각시키는걸로 보시는건 좀...

아래의 아이 (lazy\*\*\*\*) 2015-08-21 23:53

베타이 나쁜 뜻은 없는데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도 아닌데 좋은 대학 못 가면 문제 있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한;; 웹툰에서 내용이랑 관계도 없이 작가 학력 얘기하는 거 학벌주의같아 보임 (이상 인용은 모두 4화 구화)

독자들은 작가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웹툰을 창작한다는 것을 부각하며 장애를 ‘극복’한 미담으로 독해한다. 작가 라일라도 이러한 장애 극복의 사례로 자신이 부각되는 것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성공신화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sup>31)</sup> 〈나는 귀머거리다〉를 창작하기 시작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웹툰

31) 필명 ‘라일라’인 이수연 작가는 서울대에서 동양화와 국문학을 전공했다.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에 입학했어요. 그 때 한 신문사에서 저를 찾았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장애인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장애인이 역경을 극복했다는 스토리가 아직도 대중들에게 먹힌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신문기자의 눈이 그럴 정도인데 대중의 눈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스토리오브서울〉 작가 인터뷰

창작 자체가 다시 장애 극복의 사례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자 독자 김윤형은 개인의 학업능력과 장애를 굳이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프레임에 문제제기를 하고, 독자 아래의 아이는 웹툰과 무관한 학력에 대한 칭찬은 학벌주의의 혐의가 있다며 배땀을 통한 논쟁을 전개한다. 다른 독자들의 학력과 웹툰 창작에 대한 경탄이 사실상 장애에 대한 동정을 전제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이라는 장애이해의 개별적 모델의 입장 그리고 ‘극복’의 프레임 자체가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사회적 모델이 상충한다. 작가가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은 스스로 논쟁을 통해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극복의 프레임과 이를 미담으로 보는 것은 동정을 전제로 한다는 함의를 발견한다.<sup>32)</sup>

○ (ange\*\*\*\*) 2015-12-08 23:22

근데 난 왜 이렇게 댓글중에서 ~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어찌구 이런게 싫지.. 칭찬은 좋지만 그 칭찬의 바탕이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 나서 좀 싫다

가모 (cher\*\*\*\*) 2015-12-08 23:17

장애를 부정적으로가 아닌 긍정적인 장점으로 볼수있다는걸 잘 보여주신것같아요!

TMRadio (ljho\*\*\*\*) 2015-12-08 23:34

배땀에 무슨 긍정적인거 좋다 장애인데도 보기 좋게 살아간다 이런얘기가 많은데 그래. 다 좋은의도지 그럼. 다 알아. 근데 솔직히 그런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

32)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은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전형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와 상통한다.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은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거나 영웅적인 결심으로 차별에 맞서거나,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김태욱, 『영화〈완득이〉에 나타난 저신장장애에 대한 장애관의 고찰』,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쪽.

하고 긍정적이게 사는게 보기좋다 라는것 자체가 장애에 차별을 두고있는거 아닌가? 솔직히 다른웹툰들에서 한두화정도에선 작가의 말 보고 작가님 귀여우서 뭐 이런얘기는 나온다쳐도 여기는 무슨 매화 그런말이 배뻐이냐. 물론 작가님 귀엽지 긍정적인것도 좋고 근데 배뻐에 온통 그런걸로만 도배되어있는게 진짜 라일라님이 원하시는 댓글창일까? 라일라님은 그냥 자신 만화를보고 그거에대해 재미있다 뭐하다 평가해주시는걸 원하실걸? 아니 이렇게 아니어도 최소한 지금처럼 동정심 가득한 배뻐창을 원하실거같진 않아. 좀 흥분하고 과민반응한거면 미안한데 솔직히 보기안좋다 자제해주라

dkahwld (tjdt\*\*\*\*) 2015-12-09 00:21

편견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듯하네. 우리들도 손 다쳐보고, 다리 부러져보고, 독감 걸려보면서 몸 불편했던 경험 있으니 그 와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힘든 일인 거 알고 그 에 감탄하는 거 아닌가? 한 순간에 경외를 편견으로 만드네. (이상 35화 식당)

연재가 진행되면서 작품의 작화풍, 귀여운 캐릭터와 유머코드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칭찬하는 배뻐이 늘어난다. 그러자 작가의 긍정적 태도를 칭찬하는 독자들의 반응이 역시 장애 극복의 프레임의 연장선이며 동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동정은 장애가 곧 불행과 고통이므로 장애인은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우수한 학업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경우 모두 ‘극복’의 프레임이 공통된다. 장애라는 ‘비정상’을 극복해야만 보편 주체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식이다.

작가 라일라는 장애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스토리 라인을 수정하기도 했지만<sup>33)</sup>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구

33) “어떤 누리꾼이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배우는 방법을 4회에 걸쳐 실었어요. 어머니가 일일이 입과 목, 혀를 만져가면서 자음과 모음을 한 자 한 자 가르쳤던 기억, 쌀가마니를 제 배 위에 떨어뜨리면서 호흡을 배웠던 기억을 총동원했죠.” <스토리오브서울> 작가 인터뷰([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



체적인 언급이나 창작적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동정과 극복의 관점으로 독해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비판의 토론은 특기할 만하다. 사실상 작가가 밝힌 목표,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차별에 분노하는 독자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는 매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 손쉬운 동정으로 이어지는 순진한 독해가 발생하자, 독자들 스스로 제동을 건다. 다른 독자와의 공동독서를 통해 작가의 학력과 긍정적 태도를 칭찬하는 독법, 동정과 극복의 프레임이 가진 문제적 맥락을 참조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일라의 학력과 ‘극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베댓의 논쟁은 소수자를 이해하는 방식과 ‘정상성’의 위치를 문제 삼는다. 독자들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다루는 작품의 소재에 수동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체성 정치의 의미까지 논의하며 스스로의 독법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웹툰 특유의 연재 방식은 독자끼리의 공동독서를 통해 작품을 다시 읽게 만들고, 서로의 독법을 참조하게 한다.

#### 4. 이반 검열에 맞선 연애하는 보편적 일상: 〈모두에게 완자가〉

네이버 일상툰 〈모두에게 완자가〉(총 271회, 2012.6.6.~2015.5.14.)는 여성 성소수자의 일상을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체로 그려내면서 성소수자의 일상적 차별과 혐오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뤘다. 작품은 여성 성소수자 작가인 ‘완자’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야부’와의 10여년에 걸친 연애담과 일상을 연재했다. 성소수자의 사랑과 일상의 모습을 ‘보편적인’ 연애의 형태로 형상화한 전략은 독자로부터 호평 받았던 중요한

---

dxno=2284).

특징이다. 특히 연재 중 소수자를 재현하는 방법과 관련해 독자와 상호 작용을 통한 창작 및 수정을 보인다.

나름미키 (qkdd\*\*\*\*) 2013-06-02 17:45

305호있었지만 그건 자신의경험담도아니여서 거의최초죠

레야즈 (reya\*\*\*\*) 2014-01-10 15:25

305호는 내용력이 찌는거고 모완은 실화라서 설득력이 찌는거같습니다 둘다  
짱짱맨 (이상 59화 2012년 후기)

요집에 남성 성소수자가 이사왔다는 설정의 〈어서오세요 305호에〉는 정식 연재 웹툰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다룬 스토리툰이었다. 독자들은 〈모두에게 완자가〉는 “자신의 경험담”이고 자전적인 “실화”라서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일상툰을 통해 성소수자의 일상적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서술전략을 독자들 역시 인식한 것이다. 작가는 그동안 성소수자를 언론은 문제적으로, 영화는 미화하면서 자극적인 정보만을 전달했기에 성소수자의 일상은 부재했음을 비판한다. “중요한 정보만 강조되고 당연한 정보는 없”(30화 오늘도 맑음)였으므로 르포나 우려 섞인 기사로 재현 당하는 대상이었던 소수자의 삶을 자전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밝힌 것이다. 동성애자의 일상을 통해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작품은 성소수자 커플의 연애와 아웃팅에 대한 걱정, 결혼제도, 커밍아웃 경험 등에 대한 작가의 의견을 보여주면서도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사랑싸움, 작은 실수 등 일상생활 세계를 재현하는데 보다 방점을 둔다.

카르마 (marc\*\*\*\*) 2014-01-09 11:20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가는게.. 동성애툰이면 동성애 내용만 그려라? 왜 일상을 그리냐? 하는 분들 계시던데. 솔직히 동성애나 이성애나 일상에선 다를바없고 똑

같은 사람 아닌가요. 동성애라고 무조건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만 그린다면 그게 은연중에 이성애와의 구분을 짓는게 아닌지... 오히려 일상 내용 보면서 동성애가 특별히 이성애와 다르거나 이상한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64화 우리집 아저씨)

구름러브 (womb\*\*\*\*) 2014-12-14 00:20

작가님이 동성애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꾼다고 말하셨다고해서 꼭 매회 거창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분들께서는 요즘 에피소드마다 소소하고 일상적이라 재미없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공감 가고 따듯해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면서 보고있고요 또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거나 다르게 아닌 매주 소소한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엔 다 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신거같아요. 이 정도만해도 인식이 바뀌는데에 충분히 기여하고계신 듯. (252화 연인에 대한 사소한 존경심)

독자들도 정치적 발화보다는 사소한 일상의 공감이라는 서술전략이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 독자들 역시 차이의 정치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같음'의 확인에 방점을 둔다. 성소수자는 자신과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라고 예상하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소한 일상에 공감하면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성애자 독자들의 공감이 연재 내내 베댓으로 추천된다. 작가의 서술 전략과 정치적 목표에 독자들 역시 베댓을 통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양상이다.

성소수자의 일상을 공식 웹툰으로 재현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는 독자들에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다. 특히 <모두에게 완자가>의 경우 작가가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해온 연인관계를 재현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적체성과 커밍아웃 등을 둘러싸고 독자들의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진다. 연재 내내 일부 독자들은 청소년들이 성적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다른 독자들은 성적체성이 모방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시윤 (blis\*\*\*\*) 2012-09-14 14:24

아직도 동성애가 청소년한테 영향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봐요들, 만약 이 웹툰을 보고 커밍아웃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 그들의 정체성인것이지, 이 웹툰 때문에 이성애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로 성 정체성이 변하진 않아요. 원래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이 웹툰을 통해 용기나 깨달음을 얻으면 모를까. 나만해도, 대학 갈때까지 이성을 좋아해본적도 없고 내 정체성도 잘 파악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때 BL물 말고, 정상적인 여러 동성애 문화 매체물들 접했는데, 그렇다고 이성애자인 내가 동성애자로 바뀐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아픔들이 있구나 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깨달음은 얻게 됐어도. (28화 기념일 징크스)

뽀원 (eun9\*\*\*\*) 2013-05-07 15:50

동성애만화보고 동성애자되면 살인하는만화보면 살인자되고 요리하는 만화보면 요리사되고 수영만화보면 수영선수됨?ㅋㅋㅋㅋ어이없다 (80화 청소년 구독 불가)

〈모두에게 완자가〉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처 자각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은 공적 매체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 반박한다. 독자들이 공동독서를 통해 작품을 향한 정치적 혐오 발언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작가 역시 연재 중반에 들어서 독자들의 논의에 반응한다. 80화 〈청소년 구독 불가〉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되니 “19금을 걸고 연재하”라는 실제 댓글을 인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혼란을 나쁘다고 본다면 이는 성소수자가 웹만하면 되지 말라는 차별적 발언이라 반박한다. 혼란을 겪지 않는 삶보다는 자신을 아는 삶이 더 행복

하다는 주제를 전한다. 이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를 접해도 되냐는 독자에 대한 창작적 대응이다. 다수 독자들 역시 작가의 이러한 대답에 동의하는 베댓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구독 금지 문제는 작가와의 대화적 장면을 통해 해소된다.

〈모두에게 완자가〉는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이반검열에 주목한다.<sup>34)</sup> 40화 〈아웃팅 조심〉에서는 고교시절 불의의 아웃팅을 당했던 경험과 상처를 그리면서 작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독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57화 〈나의 고교 시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아웃팅 이후 교사가 성소수자 여부를 확인했으며 ‘전환치료’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들어야했던 경험, 성소수자는 공동체 생활에 어긋난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제자로 부인당한 경험을 다룬다. 완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자전적 경험을 그려 응답한다고 밝힌다.

스탠드 (kida\*\*\*\*) 2013-05-07 00:44

저번에 수업중에 동성애자 얘기가 나왔는데 애들이그게 뭐냐니까 선생님이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애들이 막 다 역겹다 더럽다 하는거예요... 거기서 양성애자인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40화 아웃팅 조심)

34) ‘이반’은 일반(一般), 이성애 정체성에 대응하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은어다. “이반검열은 학교에서 반(半)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차별을 말한다. ‘이반’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이반으로 알려진 아이들을 가려내 부모에게 알려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반을 ‘검열’하는 학교들이 있다. 교내에서 여학생들 간의 신체접촉을 막고 흔히 이반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머리 모양이나 신발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에 개입한다.”(이지은,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9쪽) 청소년들을 ‘적절한 이성애적 주체로 관리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훈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통제한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를 향한 이반검열이 두드러진다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이정은 (smlc\*\*\*\*) 2013-03-26 21:06

진짜공감이네요.. 저는 커밍아웃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못된 친구가 소문을 내서 그렇게 뒷는데 같은 학교인지라 접근금지령도 받고 학교명예를 훼손했다며 전학공고를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았던 담임선생님께서 막아 주셔서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의 선생님들.. 조금만 학생을 이해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57화 나의 고교 시절 이야기)

작가의 자전적 경험의 발화를 읽은 청소년 성소수자 독자들도 학교 현장에서 자신이 겪은 혐오 및 이반검열 사례를 공유한다. 성소수자의 일상을 다룬 작품을 읽고, 독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학교의 이반검열의 경험을 공유한다. 다시 작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반응에 응답하는 작품을 만들고, 이를 읽은 독자들은 다시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다른 독자와 나눈다. 이는 웹툰 특유의 독자와 창작의 연쇄구조가 정치적 문제의식과 결합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공동독서의 플랫폼이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분노와 호소를 다수 독자와 나눌 수 있게 한다.

이런 작가와 독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자발적인 성찰이 나타나기도 한다. 69화 〈어찌면〉은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 연인 야부와의 관계를 유달리 친한 친구관계라고 생각한 어머니가 자신의 유년시절 특별히 친했던 동성 친구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해준 사건을 그린다. 그러자 작가는 당시 분위기가 좀 더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었다면 어머니의 첫사랑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부 독자들은 어머니를 성소수자와 연관 짓는 것은 ‘불효’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알홍알 (kdn7\*\*\*\*) 2013-05-05 22:30

덧글보면 웃긴게 ㅋㅋ 일단 '어머니를 동성애자라고 가정 하는 불효녀' 라는

의견이있는데 이말자체가 웃기지. '만화 잘보는데 이변화는 좀 그래요' 이 말은 젊은 사람의 동성애는 지지하지만 어머니의 우정을 동성애로 표현한건 잘못된건데 말도 안되는소리 ㅋㅋ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세대차이 라는게 존재 하나. 사회환경적인 부분에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은 차이가 없겠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가정' 이자나 —— 이것말고도 사람을 존중해주는것 자체를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 ㅋㅋ (69화 어찌면)

인용된 베댓은 다른 독자들의 댓글(어머니를 동성애자와 연관짓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반응)을 인용해가면서 다른 독자들에게 그 독해가 왜 차별적인지를 설명한다. 작가 역시 이 논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다음화 70화 〈어떤 대화〉에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로 오해받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로 오해받으면 왜 꼭 기분 나빠야 할까?”라며 어머니에 대한 불효라는 관점이 사실상 차별을 내재한 독법이라고 반박한다. 이는 성소수자의 사랑과 인간관계의 일상 속 어려움을 본 일부독자들이 그들을 이해받아야 하는 대상, 불행한 동정의 대상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불효’ 논란은 성소수자의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필연적으로 불행한 반(半)주체라는 내밀한 차별을 전제한 입장이다. 70화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논쟁을 벌여준 독자들에게 감사인사로 끝맺는다. 이는 댓글 작성자들을 자신의 내포독자로 상정해 초대하고, 작가도 역시 독자들의 공동독서에 참여해 ‘우아한 호모포비아’에 저항하는 공동독서의 장면이다.<sup>35)</sup>

35) 작가 완자는 연재중 네이버 베댓 기능이 등장하면서 소통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을 작품에서 다루며 자신의 창작이 독자와의 상호독서가 긴밀해져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독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31화, 142화) 작가 인터뷰에서도 웹툰 플랫폼의 신속한 피드백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제가 웹툰을 선택한 이유는 ‘소통이 되는 매체’기 때문이에요. 독자들로부터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편으론 독자들의 직접적인 평가가 늘 뒤따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해요.” 친구사이 웹게시판 인터뷰(<https://chingusai.net/xe/newsletter/431713?category=468869>)

성소수자의 일상성을 그린다는 작가의 서술 전략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 정체성 정치에 관한 작가의 입장은 독자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도 한다. 작가가 늘 성소수자 담론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들을 온전하게 대변하거나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지도 않다. 작가 스스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뽑는 것은 여성 성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소개했던 170화 <렛서의 제안>이다. 게재 후 악플러(일베 유저)들이 가입한 성소수자를 아웃팅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렸다.

ㅎㅎ (ait\_\*\*\*\*) 2014-02-27 00:49

전 동성애자예요 평소에 모완 잘 보고있고 모완 덕분에 동성애자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거 같아요 혐오감이라던가 이런 안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변화된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소재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게이 커뮤니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번 화를 통해 게이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게이 아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게이 커뮤니티를 검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입해서 저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데 거기까진 생각 못하셨나요? 이제까지 사진유출이나 개인정보유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저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한 소재선정을 부탁드립니다 완자님 볼 수 있게 베플이 꼭 되었음 좋겠네요!  
(170화 렛서의 제안)

그러자 당시 일부 독자들이 성소수자들의 비공개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악의적인 아웃팅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작가를 직접 비판했다. 완자는 비판을 기민하게 받아들여 해당 작품을 즉각 수정하여 이후 성소수자들의 비공개 모임을 제안하는 내용 정도만 게재되어 있다. 다음화인 171화의 사과문을 통해 성소수자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현실과 일상을 다루려던 시도가 반대급부로 성소수자들이 원치 않는 관심을 낳았다는 반성을 보여준다. 작가의 사과문을 읽은 베댓



들은 아웃팅은 개인정보의 문제이며, 일부 댓글의 아웃팅 사례담은 자작극으로 현실적인 피해자도 없었다고 옹호한다. 성소수자의 일상을 알린다는 목표에 다시 충실하길 바란다면 원래 서술방향을 지지한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의 일상을 재현하는 것이 사회적 폭력의 대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독자들의 두려움과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가시화하는 서술전략 사이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일상을 그린다는 목표는 성소수자의 현실적인 모습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만난다. <모두에게 완자가>에서 완자는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외모의 캐릭터인 반면, 야부 캐릭터는 숫사자와 닮은 남성적인 외모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성애 남녀의 역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대중적인 통념을 연상시킨다. 사실상 성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오랜 문제의식이다.<sup>36)</sup> 5화 <여자의 행복>과 6화 <야부에 대한 오해>는 그동안 독자들이 문제시 해온 남성적 캐릭터와 역할 분담에 대해 반박한다. 레즈비언은 남성적 외모를 가졌다거나 남성적 성역할을 나누어서 한다는 오해를 다루며 야부 역시 여성적 면모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편견이라고 일축한다. 41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독자들이 야부를 좀 더 여성적

36) 초기 페미니즘은 레즈비언이 '역할 놀이'를 통해 남성적 억압을 상정한다고 보기도 했다. 스스로를 부치/뺨으로 여기는 레즈비언들은 페미니즘이 없던 시대의 레즈비언이며 젠더 구분이라는 이성애자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한 이들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반면 섹슈얼리티의 규범적인 모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부치/뺨이라는 성적 욕망들을 왜 굳이 말할 수 없냐는 오래된 반론 역시 존재한다. (에너머리 야고스, 『퀴어이론입문』, 박이은실 옮김, 여이연, 2012, 76쪽, 105-108쪽.) 게일 루빈은 모든 차이가 정치적 우월성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반대한다. 부치/뺨이 지배적 성적 체계에 대한 '각색물'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교정'이자 '정치적 올바름'일 수 있으므로 유동적이고 임의적인 범주로서 사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게일 루빈, 『미소년과 왕에 대하여-부치, 젠더, 경계에 대한 성찰』, 『일탈』, 신혜수의 옮김, 현실문화, 2015, 486-488쪽.)

인 캐릭터로 그려달라며, 남성적인 캐릭터가 레즈비언은 남성적이라는 대중적 오해를 강화한다는 우려를 전달해왔다고 밝힌다. 독자들은 레즈비언은 남성적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성을 강화해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가 ‘괴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남성성’의 범주에 속함을 강조해 현실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성별 규범의 재생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대응해 작가 완자는 독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나 설정없이 최대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41화) 실존 인물의 개성적 모습을 그리겠다고 답변한다. 동성애는 이성애의 왜곡된 버전으로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라는 통념을 제시하며 완자 커플의 모습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사실상 나누는 것이 아니냐는 독자의 반론 역시 통념으로 본다. 이에 대해 서로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답한다. 즉 ‘정상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구체적 근거를 대지는 못하고 다만 동성애와는 별개인 개성을 존중하려고 반박했다.

이러한 성역할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137화 〈남자다운 것 여자다운 것〉에서는 진일보한다. 게이가 여성적인 남성이고, 레즈비언은 남성적인 여성이라는 통념을 다시 다룬다. 자신은 이것을 편견이라고 일축해왔으나 실제로 그런 외적 특성을 가진 성소수자가 실제로 있다는 점은 어떻게 해명할까 고민한다. 그러다 영화감독 김조광수가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 모두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동성애자 중에는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의 남녀 성역할과 규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정리한다. 즉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중심적 사회의 획일적인 성역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패션, 행동 규범 등 ‘정상적인 여/남성성’에서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sup>37)</sup>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젠더와 성차를 강제하는 문화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된다는 나름의 답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모두에게 완자가〉는 작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수정하는 성장과정을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드러낸다. 웹툰 특유의 연재 주기와 댓글 플랫폼의 공동독서가 독자와 작가를 오가며 성정치 담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다.

##### 5. ‘대외 이미지’의 균열과 불편한 동성애의 전략 〈이게 뭐야〉

한편 〈모두에게 완자가〉가 ‘같음’에 방점을 두는 전략은 이성애자 독자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만들지만 무해한 타자가 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18화 〈한 공간에 산다〉에서 보듯 “아무에게도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내가 틀리지 않았듯 당신도 틀리지 않았다는 상호존중을 기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지 않을테니 호모포비아도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중심주의를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논리다. 이러한 공감의 논리는 손쉬운 방패지만 이해와 인정을 해주는 주체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타자가 균열을 만드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순간 취약해진다.

이 지점에서 ‘다름’에 방점을 둔 서술전략을 채택한 다음 일상툰 〈이게 뭐야〉(2014.9.23-현재)의 위치가 흥미롭다. 19세미만 관람불가 등급

37) 이러한 완자의 견해는 인권 운동사에서 동성애/이성애, 여성/남성의 상호 배타적인 성/젠더 체계의 제약들로부터 개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해방주의적 견해를 상기시킨다. 젠더가 이성애를 지탱해주는 억압적인 구성물이기에 성과 젠더라는 범주라는 본질적인 변혁이 성소수자의 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에너머리 야고스, 『퀴어이론입문』, 박이은실 옮김, 여이연, 2012, 71쪽, 97-99쪽)

을 설정한 만큼 남성 성소수자 작가 '지지'와 연인 '로별'의 성과 연애라는 특수성을 좀 더 전면화한다.

memories 2015-05-19 08:51:06

오늘도 재밌게 보고가요 ^o^!! 제 남자친구는 포비아에 가까웠는데... 제가 야금야금 저희 커플과 공감될때가 있는 이게 뭐야 몇몇 에피소드 보여주면서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인식시켜가는 중이에요. 처음엔 너는 왜 남자랑 남자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냐고 싫은티도 내고 그러더니 최근에 와선 자기가 먼저 부당해... 하기도 하고 저희커플 유행어가됐어욧ㅋㅋㅋㅋㅋ 지지님 로별님 항상 화이팅! 응원할게요! (62화 작가파티)

개같이생김 2015-07-01 00:10:01

저도 작가님 덕분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동성애자들을 흔히 더럽다 라고 표현하는걸 보고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첫화부터 꾸준히 챙겨보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대상만 다를뿐이었어요. ㅎㅎ 많은 사람들이 이 웹툰을 보고서 생각의 방식이 달라졌으면 하네요 ㅎㅎ 웹툰 정말 재미있고 오래동안 연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일 하다가도 쉬면서 이게 뭐야 보면 힘이 나네요. 항상 감사히 챙겨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75화 날 닦은 너)

인용된 독자들은 동성애 역시 대상만 다른 사랑이라며 보편적인 “그냥 재미난 연애 웹툰”에 방점을 두고 〈이게 뭐야〉를 읽는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알콩달콩한 “저희 커플과 공감”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독해는 보편적 사랑과 일상을 강조하면서 공감의 확장을 기대한다. “흔히 더럽다”로 대변되는 성소수자의 성애를 소략한 일반적 연애를 재현하기 때문에 ‘포비아’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독자들은 작품이 “사랑과 사람이 사랑”하는 보편적인 연애로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의 기대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맥락들을 소거하고 깊이 있는 타자와의 만남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기성세계의

질서로 타자성을 흡수하는 ‘동화주의’일 수 있다. 동화주의적인 성소수자 옹호는 이성애적 가족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이질적 잉여를 소거해 이를 보강하는 하위 항목으로 흡수한다. 역으로 차이를 강조하는 성소수자 정치담론을 이 대목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38)</sup>

한국 대중매체에서 재현된 동성애 역시 이러한 동화주의적 재현에 가까웠다. 커밍아웃의 정치성은 말살되고 온순한 타자로서 이용됐다. 동성애자인 홍석천 개인은 스타가 되도 동성 ‘성애’는 등장할 수 없다. 성소수자는 가족주의적 포용과 동정의 감정에 호소하며 이성애 규범과의 타협에 의해 간신히 가시화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매체에서 동성애자는 탈성애화되고 탈공동체화되어 제한적으로 재현되며 “동성 성애적 욕망의 표출과 집단적 발화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의 형성을 배제한다.”<sup>39)</sup> 이처럼 대중매체의 동성애 재현이 성애라는 이질성

38) 성소수자를 재현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은 인권운동사에서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초기의 동성애자 옹호(Homophile Movement) 단체들은 공적관계의 개선, 주류 사회에 수용될만한 동성애 이미지, 기존 젠더관념에 부응되는 이미지를 제시하며 동화주의를 지향한다. 반면 스톤월 항쟁(1969년)과 68혁명 이후 주류화 된 해방운동(Gay Liberation)에서는 이성애자들의 불안에 영향을 거부하고 자신들도 똑같다는 주장을 통한 지지의 호소보다는 다름을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유도한다. 뚜렷하게 다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새로운 감성의 정체성의 창출에 집중하는 해방주의적 움직임은 이후 시민권 정치가 안착되기 전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 (애너머리 야고스, 『퀴어이론입문』, 박이은실 옮김, 여이연, 2012, 53-57쪽)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두 가지 입장이 정확히 대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적, 혼종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9) 김경태, 『벽장 밖으로 나온 동성애자들, 브라운관에 갇히다』, 『문화과학』 83, 문화과학사, 2015, 143-144쪽. 괄호는 인용자. 특히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진보적 정치의식이나 동성성애적 욕망을 노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가족주의적 화합과 가부장적 포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은 JTBC의 〈선암여고 탐정단〉의 레즈비언 키스 장면이 방통위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함께 볼 때 유의미하다. 대중 매체의 가족주의적 재현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타자화 하는지는 조서연,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한국극예술연구』 35, 한국극예술학회, 2012)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이게 뭐야〉는 더욱 전복적인 지점에 닿는다. 가벼운 키스와 포옹 이상의 성애의 재현이 없었던 〈모두에게 완자가〉와 달리 〈이게 뭐야〉는 연인의 일상으로서 성행위를 소거하지 않고 (성행위 자체를 시각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귀여운 그림체로 중화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짐작하며 읽을 수 있도록 재현한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노골적으로 재현하길 피해왔던, 날 것의 동성애를 만난 당혹감과 이질감을 토로한다.

aldbaldb 2014-11-27 01:22:15

이번편에 언급하셨듯이 완자님과 지지님 만화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만화에요 처음 시작이 완자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교훈(?)을 주는게 목적이지만 지지님은 이반 대상으로 일상툰(=염장툰) 그리시는게 목적으로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웹툰이니 완자랑 비교하는 댓글이 좀 적어지면 좋겠네요-나쁜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비교 당해서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Jin은 2014-11-26 15:28:48

ㅎㅎㅎ매번 보고 있는데 댓글은 처음 다녀요~! 옆동네 모완도 보지만 그거랑은 달리 이게뭐야는 한층 강도높은(?) 느낌이라... 저도 사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림체도 이야기도 개그감도 좋으시고 재미로만 보자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점점 익숙해지는듯ㅋㅋㅋㅋㅋ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남잔데 둘다 사랑스러움ㅋㅋㅋㅋㅋ! 커플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ㅋㅋㅋ과이팅입니다^^ (이상 18화 애인은 웹툰작가)

연재 초반 〈모두에게 완자가〉를 먼저 접했던 독자들은 일상툰이라는 공통점에 기대 〈이게 뭐야〉 역시 사랑의 일상이라는 보편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 예상이 어긋나자 독자들은 두 작품의 서술 전략적 차이를 인식한다. 〈모두에게 완자가〉의 내포독자가 “일반인 대상”이고, 그들에게 ‘교훈’을 설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성애

를 보편주의적으로 서술한다고 추정한다. 반대로 〈이게 뭐야〉의 경우 “이반 대상으로 일상툰”이란 연애담(염장툰)을 지향하며 성소수자의 성애를 전면화하여 다룬다고 본다. 그래서 “개그감”과 “커플로서 공감되는 부분”의 일상툰적 공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성적 묘사를 담았기에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독자도 있다. 이처럼 동성애의 일상이라는 〈이게 뭐야〉의 서술전략은 독자에게 불편함과 이질감으로 인한 긴장을 만들어 성정치적 발화를 촉발한다.

paizffpazqkfk 2015-03-10 01:00:30

음...아 편견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보고나니 맨붕오네요..만날때 성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군요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라 그런가봅니다 근데 더 충격인건 지금 애인있는데 이런내용 그려도 되나 보는 제가 다 노심초사하네요 두분다 쿨하신건가...저같은 옛애인썰 듣기만해도 뻑치던데 속이 좁아설ㄷ

(47화 모두가 기다리던 그 이야기 중)

김종빈 2015-07-15 10:56:08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만 몇일전 열렸던 퀴어축제라던지 작가님 스토리 컨셉이 보면 대부분 동성애=sex라는 컨셉이 많더군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너무 강조되도 좀 반감이 생기더군요.. 전 교회신자도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컨셉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안좋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19금이라는 딱지하에 이것저것 모든걸 표현하겠다는 생각보다 19금이기에 좀더 심도 있고 진중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79화 작가라서 다행이야)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확신하던 독자들은 예상과 달리 〈이게 뭐야〉에서 재현되는 남성 성애에 불편함을 느낀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문제제기다. "동성애에 대한 시각"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의 '19금'인 "모든 걸 표현"하면 안되고 "진중한

이야기”를 위주로 재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도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애를 가시화하는 정치적 전략이 오히려 대중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이는 오히려 〈이게 뭐야〉가 채택한 성소수자의 이질성을 가시화 하는 서술 방식이 가진 정치적 함의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자신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은 온건한 동성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질적이라고 판단되면 배제할 권리를 지닌 주체로 자신을 상정하는 말이다. 다수 대중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해 성소수자가 다수 이성애자 독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체성은 생략해야 하고, 덜 이질적인 “심도 있고 진중한 이야기”로 한정해서 발화해야 ‘선택’ 받을 수 있다. 균열을 일으키는 성소수자의 가시화 전략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적 혐오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sup>40)</sup> 이 긴장감은 성소수자 집단이 가시화를 위해 선택한 정치적 전략(자공심 행진, 퍼레이드)인 성소수자의 ‘노출’의 노골화를 문제삼는다. 차이를 드러내며 기존의 성적 위계와 일상적 질서를 정지시키는 카니발인 퍼레이드, 동성애를 재현하는 〈이게 뭐야〉 모두 이성애적 질서를 교란하며 타자와 조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충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이게 뭐야〉가 온건하고 온순한 타자가 아닌 문제적 타자성을 재현함을 보여준다.

〈이게 뭐야〉가 성소수자의 성애를 재현하는 것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성소수자와 성애를 연결하는 시각 자체가 편견이며 성소수자는 생각보다 ‘건전’하고 기성 질서를 파괴하지 않

40)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기사와 네티즌의 반응은 성소수자의 정체성보다도 남성 성소수자의 ‘노출’에 대한 거부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성 성소수자의 ‘노출’에 대한 혐오는 여성 신체의 노출에 대한 선호(대상화)와 같은 맥락에서, 대중매체의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male gaze)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질/외설적이라서 ‘성애를 빼야’ 한다면 ‘성소수자의 무엇을 재현해야 되는가?’



는다며 동화주의적으로 반론하는 독자들이 있다.

슈니발렌 2014-11-04 12:43:41

게이들은 성관계가 문란하다더니 이런거 다 편견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른겁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구요. 실제로 그 음지의 짬방? (어느분이 댓글에서 언급하셨던데) 실제 게이들은 그곳에 간 사실이 밝혀지면 게이들 끼리도 좋은 눈빛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에요. 물론 그 지인과 지인 주변의 생각이니 일반화시킬 순 없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케이스바이케이스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에구 내가 뭐라고 쓴거냐! (12화 메모메모)

성소수자의 성애를 문제 삼는 다른 독자에게 사실 재현되는 것처럼 문제적이지 않고, 대다수는 온건하고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옹호다. 이러한 독법은 앞서 살펴본 공감의 서술전략을 지지하는 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반대로 작가의 성애 재현을 지지하는 독자들은 성애를 제거하고 온순하게 그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한다. 왜 성소수자는 성애를 제거하고 재현하길 기대하냐며 이성애자의 일상툰에게 적용하지 않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독자들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강변한다.

aldbaldb 2014-10-15 21:43:43

아 너무 답답해서 한자 적고 갑니다. 이거 성인툰이고요..제가 보기에 작가분이 동성애에 대한 소개나 이해를 구하고 이리려고 그리셨다기보다 동성애도 의외로 평범하다고 우리 이렇게 사귀다고 그렇게 그리시는거 아닌가요? 과연 그냥 이성애가 나오는 성인툰에서 저런 드립이 나왔어도 이렇게 과하다는 반응하셨을까요? 아닐거 같습니다. 이번편 좀 세네 이정도겠쥬. 왜 동성애는 삼가해야하고 이성애는 괜찮아요? 이거 동성애 만화고 성인만화인거 다들 알고 오신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만 있을때 여자애기, 음담패설하는거가 훨씬 수위 강하지 않나요? (7화 오래된 연인의 싸움)

윤쫘꼬마 2015-03-10 05:24:18

솔직히 저런 연애가 다 좋게보이는건 아니지만, 다른거 다 떠나서 지지님이 변명이나 미화없이 저런모습까지도 솔직히 그리신게 제일 대단하심 ㅎㅎ 솔직히 이성들끼리 만남이나 연애 하나하나 뜯어봐도 저거보다 더한경우 많을텐데 뭐 주말에클럽가봐라 꼴들이 어떤가ㅎㅎ (47화 모두가 기다리던 그 이야기 중)

인용된 베댓은 성애를 과도하게 묘사한 것 아니냐는 다른 독자들에게 <이게 뭐야>의 정치미학적 의도를 대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소개나 이해”를 구하거나 “변명이나 미화없이” “솔직하게 그리”는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 좋게 보이는” 대외 이미지 고려가 아니라 오히려 변명과 미화를 제거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사귀다”는 것을 그린다. 이는 성소수자가 성애가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평범한 욕망과 연애임을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게 뭐야>의 댓글은 성소수자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온건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독자들과 반대로 눈치 보지 않고 성소수자의 성애를 솔직하게 그리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독자들이 작품의 성소수자 재현 전략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대립에 작가 ‘지지’의 견해가 돌출되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초코맛오렌지 2014-12-03 10:57:59

이 만화가 아무리 19금이고 동성애를 그린 만화라지만 지지님이 공인가요? 바텀이네 이런소리는 좀 아닌듯... 그럼 맥들 성관계는 원활히 진행되나요? 무슨체위를 선호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들은 좋아할라나? 엄연히 넘어야할 선과 아널선은 있는건데 사생활얘기는 좀 ..... (20화 다이어리)

수확공식 2015-03-10 00:06:22

지지님이 .... 지지님이 님트이었구나..... ㅋㅋㅋㅋㅋㅋ  
(47화 모두가 기다리던 그 이야기-중 “님트”은 바텀을 의미)

연재 초기 일부 독자들이 작품 속에 재현된 지지의 성적 일상을 유희

적으로 언급하자, 사생활에 속하는 성애를 언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베댓은 많은 지지를 받는다. 독자들은 성소수자의 성애를 보호해 줘야 할 사생활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작가 지지는 47화 〈모두가 기다리던 그 이야기(중)〉, 134화 〈넘지마, 마지노선〉 등에서 두드러지듯 자신의 성애를 재미있게 재현하고 이에 대한 독자의 당혹감을 스스로도 예상한다. ‘보호’를 배신한 작가의 태도에 대해 독자들은 강한 당혹감을 느끼며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논쟁을 벌인다.

그러나 지지는 일부 독자들의 독해와 달리 대중을 향한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주제의식을 피력한다. 27화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는 전면적으로 “이게뭐야를 그리는 지금도 딱히 세상의 편견을 타파해 보겠다는 거창한 포부 같은건 없다.”고 밝힌다. 다만 “이게뭐야를 통해 색안경이 저절로 벗겨져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남기긴 한다. 지지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가장(假裝)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sup>41)</sup> 37화 〈이상한 나라의〉는 자신의 작품이 성소수자를 “좋아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동정 사절”이라고 한다. 성소수자의 재현이 ‘설득’의 수단에 한정될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이해와 동정을 구걸하는 셈이라는 의식이다. 가시화를 결정하는 상징계의 시선을 의식한 ‘대외 이미지’에서 자유로운 작가는 성소수자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

41) “나는 작품을 통해 게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니다. 한 번도 게이에 대해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내가 게이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작품을 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 웹툰가이드 작가 인터뷰([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

을 위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날 것으로 듣고 나서 공감할 수 있을 때, 동정과 구걸을 통하지 않은 진정한 타자성에 공감할 때, 저절로 색안경이 벗겨질 것이기에. 작가는 성소수자 본인에게 당연한 일상을 그리기 위해서 성애를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자각하고 있다.<sup>42)</sup>

그래서 애초에 18화 〈애인은 웹툰작가〉는 작가가 일상의 웹툰 연재, 즉 “웹밍아웃”을 통해 “동성애자로 태어나 힘들어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동성애자의 행복한 일상의 재현이라는 작품의 목표를 제시한다. 설사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본다.<sup>43)</sup> 동정의 구걸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자족적인 주체의 일상 재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54화 〈성인작가의 남모를 고충〉에서는 기존 일상툰이 지나치게 “퓨어”하다며 “성인커플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에 대해 독자들이 “게이니까 일상툰에 19금 묘사가 나와도 괜찮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비판했음을 밝힌다. 작품에서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일부 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 성소수자 커플의 솔직한 일상을 재현할

42) “시즌2는 농익은 성인커플 일상을 주제로 썼기 때문에 섹드립을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30대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땐 딱히 과감한 것도 아니겠지만 대형포털이라는 플랫폼과 일상툰의 장르적 특성상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 같네요.” 〈후기〉, 2015.4.28 연재분.

43) “처음 웹툰에 도전할 때 무엇을 그려서 올릴까 생각하던 중, 역시 게이로서 내가 바라보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았다. (게이) 커뮤니티에 가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가 너무 많다. 글들을 읽어보면 결국 게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건가라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처음 만화의 컨셉을 가지고 시작했다.” “작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썼을 경우 “게이는 다 저래?”라는 느낌을 받을까봐 좋은 면만 쓰려고 했었는데 점차 현실적인 부분(안 좋은 얘기)도 쓰게 됐다.” 웹툰가이드 작가 인터뷰([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

것이고,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독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애와 일상의 결합을 유희로 즐기며 공유한다. 연재가 안정되자 추천 상위권의 배뎃은 대체로 당일 연재분의 “섹드립” 유머를 공유하고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뭐야〉의 공동독서는 대중의 이름으로 들이댄 동화주의적 ‘정치적 올바름’과 ‘대외 이미지’라는 함정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이게 뭐야〉는 타자의 재현이 타자의 맥락과 특수성을 희석시키지 않은 방식일 때, 그 목소리를 회복하게 해줌을 보여준다. 함정을 넘은 독자들은 비로소 불편한 타자성을 함께 향유한다.

## 6. 나가며

본고는 웹툰의 공동독서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자들끼리의 상호 토론을 거쳐 장애 이해에 대한 독해의 수정을 보여준 〈나는 귀머거리다〉, 독자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성담론의 발전 및 공동창작이 두드러진 〈모두에게 완자가〉, 독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요구를 극복하면서 타자성을 고수하는 〈이게 뭐야〉의 구체적인 댓글의 사례와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정치 미학을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전히 유의미한 명제는, 일상 속의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문화적 문제들의 돌출임을, 동시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일상적임을 의미한다. 공동감을 나누기 위한 장치가 있을 때, 일상성은 공유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나아가 정치로 부상한다. 공동독서를 통해 비가시화되었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타자의 삶-체험을 함께 그려나가는 장면들. 이 장면이 엘리트 미학이 아닌 대중매

체를 통한 자생적인 반향이라는 점에서 특히 소중한 자원일 수 있다.

웹툰의 공동독서가 제시하는 창작과 향유의 새로운 플랫폼(매체)은 근대적 독법과 다른 새로운 독법의 시대를 예비하게 한다. 근대적 개인의 고립된 독서가 아닌 대화적 맥락에서 생성되는 오래된 미래의 독서 방식과 감성적 정치미학을 다시 제기했다. 웹과 앱이라는 웹툰의 매체는 새로운 독서 모델이 어떤 잠재적 형태일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훗날 우리는 구텐베르크에 맞먹는 은하계의 시원을 여기서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라일라, 〈나는 귀머거리다〉, 네이버 웹툰.

완자, 〈모두에게 완자다〉, 네이버 웹툰.

지지, 〈이게 뭐야〉, 다음 웹툰.

### 2. 논문과 단행본

고은나래·김효용,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있어서 웹툰의 발전과 앱툰에 관한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1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47-50쪽.

김경태, 「벽장 밖으로 나온 동성애자들, 브라운관에 갇히다」, 『문화과학』 83, 문화과학사, 2015, 142-159쪽.

김규인·이병철·이준아·손홍찬·김민신, 「웹툰 내용 유형에 따른 페이지 넘김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14(2), 한국HCI학회, 2014, 627-630쪽.

김성애,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4, 53-73쪽.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인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인문학』 4(2),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1, 101-123쪽.

김용현·고은영,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74-84쪽.

김재필·성승창·홍원균, 「웹툰 플랫폼의 진화와 한국 웹툰의 미래」, 『Issue &Trend』, KT경제경영연구소, 2013, 1-19쪽.

김정인, 「일상툰에 나타난 청년의 정체성과 재현기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지연·오영재, 「웹툰에 있어서 서사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국내의 웹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0(3), 한국영상학회, 2012, 127-142쪽.

김태욱, 「영화〈완득이〉에 나타난 저신장장애에 대한 장애관의 고찰-Priestley의 다중장애모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현원·염동철, 「웹툰의 스크롤 인터랙션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요소 적용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3, 32-33쪽.

류철균·이지영, 「자기재현적 웹툰의 주제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30, 대중서사학회, 2013, 117-147쪽.

- 박인하, 『한국 웹툰의 변별적 특성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82-97쪽.
- 박정기, 『미디어 융합 기반 문화 콘텐츠 시각 체계에 관한 고찰: 인터랙티브 웹툰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5,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4, 249-249쪽.
- 손현화·전승규, 『스크롤의 미디어, 웹툰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발표논문집』 10, 한국디자인학회, 2015, 734-737쪽.
- 손혜령, 『웹만화의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267-275쪽.
- 송요셉, 『웹툰의 발생 과정 탐색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0(4),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133-137쪽.
- 심홍진·유경한, 『소셜미디어 이용과 TV 시청의 관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1), 문화방송, 2014, 5-49쪽.
- 와타누키 레이크, 『이용자간 상호작용성이 네이버 웹툰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베스트댓글과 일반댓글의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위근우, 『새로운 데뷔 시스템은 웹툰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실천문학』 119, 실천문학사, 2015, 226-233쪽.
- 윤기현·정규하·최인수·최해술, 『웹툰 통계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177-194쪽.
- 이수연·박종영·박정자·이은숙,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이해교육의 실태분석과 나아갈 방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3, 19-35쪽.
- 이숙정, 『고통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중증 장애 신생아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한독교육학회, 2011, 87-100쪽.
-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용욱, 『디지털서사체의 미학적 구조(4)-웹툰의 아이러니 서사전략』,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213-233쪽.
- 이지은,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규하·윤기현, 『웹툰에 나타난 새로운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5-19쪽.
- \_\_\_\_\_, 『웹툰에 나타난 특징적 말간 연출에 대한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393-416쪽.
- 정병설, 『장편 대하 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221-248쪽.



- 조서연,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한국극예술연구』 35, 한국극예술학회, 2012, 365-401쪽.
- 조은숙, 『식민지시기 "동화회(童話會)" 연구: 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 45, 민족문화연구원, 2006, 225-265쪽.
- 주현식, 『웹툰의 표현 형식 변화에 따른 비사실적 표현에 의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대자연구소, 2014, 375-384쪽.
- 채정화·한창완·이영주, 『웹툰 서비스의 사용편리성과 상호작용적 행위가 서비스 만족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259-286쪽.
- 한혜원·김유나, 『한국 웹툰의 아이러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469-502쪽.
- 홍난지, 『개그웹툰의 자기반영적 패러디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109-124쪽.
- 홍난지·박진우, 『병맛만화의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0(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4, 149-168쪽.
- 홍은정·엄주희, 『웹툰의 UX 특성과 사용자 몰입 및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4),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의, 2015, 293-306쪽.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2.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14.
- 애너머리 야고스, 『퀴어이론입문』, 박이은실 옮김, 여이연, 2012.
-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 외 옮김, 현실문화, 2015.
-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2012.

### 3. 인터넷 자료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5&mcate=M1006&nNewsNum=20150317002&nidx=17004>
-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
-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431713?category=468869>
- [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http://www.webtoonguide.com/index.php?mid=rds01_interview&page=1&listStyle=webzine&order_type=desc&document_srl=9665)

## Abstract

Co-Reading in Webtoon platform and its political aesthetic possibilities

Kim, Keon-Hyung(Korea Military Academy)

Webtoon, an art of the web and smartphones, is different from the usual publishing culture in that readers decide an author's debut and her work's publication.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webtoon's platform allows for the juxtaposition of her work and her readers' comments. This paper focuses on how webtoon's co-reading,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adings of others, gives rise to a politico-aesthetic effect similar to the emotional aspect of the pre-modern form of common reading that so often has provided a sense of community.

In order to focus on the political aesthetics of the form of reading enabled by the webtoon platform, this paper looks at the politico-aesthetic nature of diarytoon's reader-author communication, which shapes and shares the process of the author's as well as readers' identity formation. To that end, this paper looks at three works: 〈나는 귀머거리다〉, whose readers correct their own initial reading that viewed disabilities as something either to be pitied or to be awed, 〈모두에게 완자가〉, whose author shared how her gender politics evolved by communicating with her readers about her ordinary experience as a sexual minority, and 〈이게 뭐야〉, whose author resisted the readers' demand as to how the other should be represented, tried to crack its assimilated representation, and ultimately put it in a positive light.

All this shows that the webtoon platform induces active reader-reader as well as reader-author engagement, showing it to be a place where the work is created and read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webtoon's platform and co-reading, this paper shall emphasize its mutually communicatory feature as a form of media and its effect. Furthermore, it will be shown that webtoon with above mentioned features could elevate hitherto unknown ordinary experience of the other into a political matter.

(Key Words: Webtoon, Diarytoon, Co-Reading, Mutual communication, Best comments, Everydayness, Disability awareness, Sexual minorities,

Identity)

논문투고일 : 2016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8월 3일

수정완료일 : 2016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7일